

서울영등포우체국 2021년 11월 1일 개국!



서울지방우정청(청장 신대섭)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서울영등포우체국이 신축 청사의 문을 열고 지역주민을 위한 우정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.

서울영등포우체국은 대지 3,191㎡, 연면적 23,750㎡로 지하 4층, 지상 12층의 규모로 건축되었으며 앞으로 영등포구 지역주민의 우정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.

그동안 양천구 임시청사 민원실과 여의도 포스트타워 영업과 등 두 군데에서 교부했던 우편물은 앞으로는 신청사인 서울영등포우체국(주소: 영등포구 선유동2로 6) 2층 민원실 우편물 교부처(☎02-785-5669)에서 우편물 교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.

기존 서울영등포우체국은 서울영등포동4가우체국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며, 인근의 서울당산동우체국은 서울영등포우체국으로 통합 운영된다.

서울영등포우체국장은 소속국 명칭 변경·업무 종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이용고객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, 앞으로 새로운 청사에서 보다 나은 대국민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.